

재미와 연구 결합한 '한국사萬人譜'

동아일보사 펴냄 「근대인물한국사」

식민지교육을 받지 않고 '민중적 민족사관'의 세례를 받으며 자란 세대일지라도 通史를 통독하고 나면 한국사는 곧 痛史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다소 '신경질적인 감수성'을 지닌 이라면 "부정하면서도, 한국사의 정체성을 믿게 된다"고 술회한다. 진보적인 의식의 소유자들은 그것을 '俗流적 사관'의 영향 때문이라고 비판하지만 특히 우리의 근현대사를 읽을 때 허탈감과 무기력감에 빠져보지 않은 젊은 영혼들이 과연 있었을까. 오히려 '궁핍한 시대'에 태어난 절긴 악연을 끊고자 몸부림치다 사라진 민초들을 형상화한 소설이나, 운명을 거역치 않으며 예정된 실패를 향하여 질주하다가 낭자한 혈흔을 남겼던 '실패한 자의 전기'를 읽으며 민족에 대한 신뢰나 우리 역사에 대한 긍지를 느끼는 터였다.

최근 동아일보사에서 간행한 「근대인물한국사」는 먼저 문은 신화처럼 되어 버린 음각된 인물들의 그림자를 추적해 우리의 근현대사의 빛나는 긍지를 빙산의 일각만큼 드러내주고 있다. 총 104명의 인물을 전 94권의 책으로 묶어낸 「근대인물한국사」 시리즈 중 제1차 배본분인 10책이 첫선을 보인 것이다.

전94권 중 제1차분 10책 선보여

「이동녕-임정 구축에 바친 독립의지」(이현희 지음), 「유길준-단한 사회에 던진 충격」(이광린 지음), 「김두봉-한글 연구에서 무장투쟁으로」(심지연 지음), 「나철·김교헌·윤세복-민족을 발견하고 나라를 찾자」(박환 지음), 「효봉 선사-누가 오늘 일을 묻는가」(김용덕 지음), 「주기철-죽음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소서」(민경배 지음), 「이광수-무정'의 빛, 친일의 어둠」(이동하 지음), 「이상화-빼앗긴 들에서 찾은 민족혼」(이기철 지음), 「정지용-차마 잊힐리아 향수의 시인」(김학동 지음), 「이중섭-난 정직한 화공이라 자처 하오」(강원희 지음)가 그것들이다.

"해당 인물의 업적·행적과 함께 그를 중심으로 펼쳐진 역사적 사회적 배경을 오늘날의 시각에서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많은 깨달음과 배움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이라는 취지에서 기획된 이 총서는 해마다 봄과 가을에 10권씩 간행되어 빨라야 95년에 완간될 예정이라고 한다. 동아일보사 김병관 사장은 간행사를 통해 "이 총서가 계속 이어지면서 수록인물은 추가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장차 '한국 근현대사의 만인보'가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인물들의 행적을 통해

근현대사의 '귀납적 이해'를 시도한

「근대인물한국사」 총서는 '궁핍한

시대의 실패한 자들의 만인보'라

할 만하다. 고뇌의 시대를 질주하다가

낭자한 혈흔을 남긴 그들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시대를 사랑하는 방법과

근현대사에서의 크나큰 긍정을

만나게 된다.

강만길, 김용준, 김윤식, 신용하, 유민영, 윤병석, 이광린, 진덕규 교수가 선고위원이 되어 선정한 인물들은 '독립운동' '정치' '사회' '학술' '문학' '예술' 분야별로 분류되며 각기 백 단위의 일련번호가 매겨져 총서의 코드에 편입돼 있다. 이를테면 「이동녕」은 107번, 「유길준」은 206번, 「효봉선사」는 312번 등으로 총서 속의 고유번호를 갖는다. 그중에는 아직 일반인들에게는 일면식도 없거나 생소한 인물들도 많다. 독립운동 분야의 유인석, 허위, 정치분야의 이하응, 허헌, 사회 분야의 양기탁, 박용만, 예술 분야의 이동백, 조택원 등등이다.

이 총서에 등재된 인물들은 식민지시대라는 난세에 가장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연배였거나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나이였던 '가까운 선조'들이다. 따라서 "원고지 700매 분량의, 정확한 史實에 근거를 두고 다큐멘터리 형식을 취한다"는 차가운 집필원칙이 준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들의 뒤를 밟아가면 한 시대의 아픔과 상처와 조우하게 된다. 세상과 사람을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방법의 일대 진열장이 이 총서는 그리하여 패배가 결국은 승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역사의 역설을 웅변한다.

일반인 대상의 다큐멘터리식 평전

평전을 겸한 다큐멘터리 형식이며 학생 및 일반인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서술된 「근대인물한국사」 시리즈의 의의는 그러나 평범하지 않다. 우선 자료의 확장과 보충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89년에 「임정과 이동녕 연구」를 저술한 바 있는 이현희 교수(성신여대 사학과)는 이번 「이동녕」의 집필을 계기로 그 동안 "쏟아져나온" 자료를 참조했으며 중국 상해로부터 기강, 중경까지 27년간 임정이 거처한 모든



95년경 94권으로 완간될 예정인 「근대인물한국사」 시리즈 제1차 배본분 10책

지역을 "수십번"에 걸쳐 탐사한 결과를 반영했다고 밝힌다. 특히 해방 이후 북한에서 활동한 '전력' 때문에 공식적인 기록은 고사하고 기본적인 자료조차 유실된 채 망각 속에 묻혀 있던 김두봉에 대한 심지연 교수(경남대 정의과)의 「김두봉」 편은 국내외에서 자료발굴과 원고정리를 위해 2년이 소요됐다. "이를 시도한 것은 현존하는 자료나마 더이상 유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 있을지도 모를 본격적이고도 종합적인 연구를 위한 초보적이고 부분적인 자료라도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라는 뜻을 머리말에 적고 있는 것이다.

두번째로는 읽는 재미와 연구사를 결합해보려는 새로운 시도라는 점이다. 전문연구자와 달리 독자들과의 편의를 위해 딱딱한 원문을 많이 윤색했고 분량이 많지 않으며 글의 중간중간에 사진·삽화들이 수록돼 있다. "그러나 이 책은 동시에 연구사적인 이해도 곁들여져 있다"고 서중석 교수(성균관대 사학과)는 말한다. "자세한 참고문헌이나 찾아보기는 이 책이 학문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는 것이다.

한편 "저자에 따라 견해를 달리하는 사항도 부기하여 객관적인 판단을 유도하도록"이라는 '집필지침'이 명시하듯 필자에 따른 편향성의 오류를 최대한 원천봉쇄하고 있는 것이다.

「이동녕」에서는 일가를 이르고 두만강을 건너는 모습에서부터 신간회, 신흥무관학교를 거쳐 가난과 내분으로 흔들리던 상해임정의 구심점 역할을 맡기까지의 생애가 펼쳐진다. 「김두봉」에서는 "우리의 지도자 김두봉주석 만세" 소리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연안에서 해방을 맞은 그가 귀국 이후 북한정권 수립에 열정

을 바치지만 끝내 숙청의 회오리에 휩쓸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광경이 그려진다. 「효봉선사」에서는 "큰집이 무너져라 하니 붙들여라"라고 외치며 무너져 내리려 하는 한국불교를 부흥시킨 그의 체온이 전해진다. 그밖의 다른 책들에서도 인물들의 숨결에서 역사의 흐름을 감지해내는 일이란 그다지 어렵지 않다. 고뇌의 시대를 맨발로 걸었던 풍운의 삶들이 파란만장하게 펼쳐진 「근대인물한국사」는 그렇게 우리 근현대사의 오욕과 영광을 교직시켜 놓는다.

방대한 두뇌, 자료, 경비의 성과물

한국근현대사의 '귀납적 이해'를 시도한 이 총서는 많은 매력과 미덕을 골고루 갖추고 있지만 "발간된 10권 중 몇 권을 제외하면 과연 새로운 연구성과와 새로운 시각에 의한 해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다"고 서중석 교수는 지적한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사 출판부 임이자, 성인환 차장은 필진확보의 어려움과 자료의 부족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94권의 총서를 감당할 만큼 근현대사 연구의 저변이 넓지 못하다는 것이다. 아직 집필 청탁이 안 된 인물들도 많고 책 한 권에 두세 인물이 묶이는 경우는 자료가 부족한 사정이 있기 때문 이라고.

이어서 "이 시리즈가 지향하는 바가 전문적 학술총서라기보다 일반독자를 대상으로 한 다큐멘터리식 평전임"을 환기시킨 뒤, "동시대인이 모두 고인이 되었고, 일제와 전란을 거치며 전기적 자료가 많이 소실되고 훼손된 상태에서 이만한 양과 질의 성인용 전기물은 우리나라 위인전집출간의 새 이정표라 할 만하다"고 전한다.

— 김중식 기자